

ARM은 Gospel Recordings, LPI와 연합하여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들의 부족어로 된
음반을 만들어 복음을 전파합니다.

THE MEMBER OF GRN **복음음반선교회**

ARM

Audio Recordings Mission

(전 구락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복음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편과 어린양 앞에 서서(계 7:9))

그들의 말로 듣게 하라

제 8 호 1998년 가을호

발행처▶
복음음반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송파구 오금동 94-3 성진 B/D
Tel 408-6959 Fax 430-4353
Email : amcord @ uritel.net
http : //kcm.co.kr/arm
발행인▶조 관 호(Barnabas)
편집인▶정 정 희(Joy)
정기간행물등록▶
1996.2.21 등록번호 마2540
제 작▶은혜문화(443-9305)

목 차

- 조이칼럼
- C국에서 온 편지
- 네팔에서 온 편지
- GRN 인도지부에서 온 편지
- 소수민족 취록 여행을 마치고
- 취록선교여행일기
- 언어의 취록보고
- 미니 수동식 발전기 제작되다
- FRTS 훈련생의 글
- GOSPEL RECORDINGS NEWS
- 광고

언제든지 기뻐하라!



조이 리더호프

Gospel Recordings 설립자

이번 주간에 찬양과 기쁨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신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찬양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토록 요구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찬양을 바라신다고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찬양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교향악단에서는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다. 어떤 악기도 잠잠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67:5~7

먼저 찬양하라. 그러면 땅이 그 소산을 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럴 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 때 비로소 부흥이 올 것이다.

땅의 모든 끝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잃어버린 자들이 발견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거역하던 자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 소산이 반드시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축복을 넘치도록 부으시기를 기다리신다. 더 이상 담아둘 자리가 없을 때까지 말이다. 준비됐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언제든지 기뻐하기로 결정하라!

매순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현자인 남편을 주시기 전에는
한국에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배우자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그리워서 한국에 가고 싶지만
발목이 잡힐까봐
가고 싶은 마음을 참고 있습니다.

장로님, 조이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곳 ○○의 여름은 우리 한국의 가을
처럼 쌀쌀하고, 비가 많이 옵니다. 한국
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저는 두 분의
뜨거운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
다. 그 동안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속에
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고
통과 어려움 가운데 서도 기뻐하고 감
사할 수 있는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한
자신을 느낍니다. 사역에 있어서는 그다
지 발전이 없었지만 매순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구월 초에 정선생님이 오셔서 녹음하실
계획이고, ○○의 성경학교들과 연결되
어 일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학
교들이므로 안보의 우려가 있지만 하나
님이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7,8월
에는 많은 언어를 녹음하기를 기도하며,
또 실질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 미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그
단체로부터 언어 조력자를 공급받을 계
획이고, 대신 저희는 한 언어당 100개의
테잎을 공급할 것입니다. 곧 천 개의 테
잎을 구입하여 배포가 될 것이고, 1년에
15개의 새로운 언어 취득 목표가 꼭 이
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성경
학교만 열어 주셔도 15개는 식은 죽 먹
기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들을 보
내어 주시고, 협력 선교사들과 좋은 언
어 조력자를 공급해 주시기를, 그리고
저희가 배포하는 테잎이 하나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계를 잘 수리하고, 컴퓨터도 볼 줄
아는 본토인 부부가 함께 협력할 것 같
습니다. 김 선생님네는 사업에 바빠서
저희 일에서는 아예 떠나 버리셨습니
다. 한국인으로는 드보라 언니와 저
만으로 이곳 ○○은 충분합니다. 저희
둘이 조이와 앤처럼 일하겠습니다. 하
나님이 또 그들에게 열어 주셨던 놀라
운 역사를 저희에게도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모님이랑 여호수아 선교사님은 언제
○○에 오시지요? 마리아는 아직도
한국에 있는지요? 이철우 선교사님은
훈련을 잘 마치셨겠지요? 한국의 가족
이 그리지만 한국은 그리지 않으니, 그
리고, 여기 ○○에서도 재미있고, 약간
의 진보도 있으며, 이 곳 ○○의 생활이
너무나 좋고 이 나라가 날마다 좋아지
고, ○○인들이 사랑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현자인 남
편을 주시기 전에는 한국에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배우자 문제를 위해서도 기
도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그리워서 한국
에 가고 싶지만 발목이 잡힐까봐 가고
싶은 마음을 참고 있습니다.

두 분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두
분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열심히 기
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분의 뜨
거운 기도 덕분에 이 ○○베이스가 잘
다져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좋은 소
식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8. 6. 28 미키 조 드림

「JOYTALK」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문안드립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갑자기 이렇게 메일을 띄우는 것은 한 가지 부탁 드릴 것이 있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곳의 셀파 부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갈 때마다 가스펠 레코딩스에서 녹음한 테이프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효과가 참으로 좋아서 며칠 전에는 “록 구룡” 형제와 우리 셀파 형제 자매들의 도움으로 셀파어 테이프를 다시 녹음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동식 카세트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먼저 한두 사람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다가 수동식 카세트를 이용하여 네팔의 노래테이프 같은 것을 틀어 주고, 네팔어 찬송가를 틀어주며 복음에 대해 소개를 하다가 복음 테이프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한둘씩 계속 모여듭니다. 굉장히들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우리 형제들은 모두들 수동식 카세트 돌리는데 명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 수동식 카세트의 공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는 저희 마을에 한 대를 두었고(이것은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기계가 되었습니다), 한 대가 저에게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

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것과 함께 가스펠 레코딩스에서 한대를 더 빌려 마을에 다녀왔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네팔 가스펠 레코딩스에도 기계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지난번에 정아브라함 선교사가 16개 보낸 것 중 3개 정도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바나바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그들도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데,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학생들이 7월 중순 이곳에 오는데, 이편에 수동식 카세트를 5대 정도 보내 주실 수 있는지요? 이것은 저희 셀파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Joy Talk”가 아직 완성이 안되었다면, 옛날 모델도 괜찮습니다. Pay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가능한 일이라면 형제를 ARM으로 보내겠습니다. 저에게 email한번 주세요.

승리하시고요, 며칠있다가 기도 편지도 보내겠습니다. 생각 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께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또 이사를 했습니다. 주소와 이메일은 같지만 전화와 FAX는 “977-1-526563”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6월 19일 변성우 선교사 올림



먼저 한두 사람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다가
수동식 카세트를 이용하여
네팔의 노래테이프 같은 것을
틀어 주고, 네팔어 찬송가를
틀어주며 복음에 대해 소개를
하다가 복음 테이프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한둘씩 계속 모여듭니다.
굉장히들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ARM을 섬기시는 바나바 조 형제님께

모리스 존 선교사는

지난 10여년 동안

OM에서 사역하시다

복음음반선교회 방갈로

인도지부(LRI INDIA)에서

취록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FRTS 1기 훈련생으로

한국의 3자매들(미키, 쉐, 그레이스)과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취록된 언어는

CHIK-BARIK, BIRHOR, BIRJIA,

KHADIA, KISAN-KURUK,

KURMAJ KAWARI

우리의 구속자 되신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마지막 서신을 드린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군요. 그동안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저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저는 인도 내륙지에 언어취록여행을 다니느라고 바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두 번의 취록여행의 결과로 7개의 새로운 언어로 주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BAIHA(바이하)는 인도의 오지입니다. 이 특별한 지역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때문에 살해당했던 지방입니다. 문맹률은 상당히 높아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지역은 인도에서 가장 복음전하는 것이 힘든 곳입니다. 지난 2월, 주님께 이 가장 힘이 드는 "바이하" 지역의 미복음 언어들을 취록해 달라고 기도하였고 곧 응답하셔서 2월 14일 그곳으로 취록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1차 여정 때 4개의 "바이하" 부족

언어로 복음을 녹음할 수 있도록 인도 하셨습니다. 실로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지역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미드립니다.

지난 5월 16일 2차로 "바이하"에 도착하여 3개의 새 언어로 복음을 녹음하였습니다. 다음 3차 여행지로는 "차이바사"(CHAIBASA)를 취록여행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kg가 넘는 나그라(NAGRA)녹음기와 주변기기를 합하여 30여kg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상당히 먼 여정을 장굴과 산을 넘어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취록여행기간 내내 은혜와 선을 베푸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와 저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레이스, 쉐, 그리고 미키 자매님들은 모두 안녕하신지요 안부 부탁드립니다.

19th May, 1998

Morris John(모리스 존) 올림



가나 와사종족(WASSA)을 향한 복음의 행진

우리 가나 팀은 최근에 와사(WASSA) 종족으로 3주 Outreach를 마치고 돌아왔다. 우리 Outreach는 원수에 의해 마술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간다는 뜻에서 성경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했던 빌립을 본받아 “사마리아 공락”이라고 명명했다. 비슷하게도, 와사족은 고대 이방사교의 지배하에 있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20이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와사족은 열대우림지역 주변에 살고 있다. 우리는 ISUSU 4륜구동 짐차를 타고 24개 마을을 방문했다. 우리는 1,600개의 와사어 카세트와 10개 언어로 된 전도지, LLL그림 성경 시리즈 27개를 배포했다. 그리고 <예수> 영화와 <Lost Forever>을 상영했다.

우린 아주 지쳤지만 좋은 결과를 낳았다. 우리 팀과 자원봉사자들이 집으로 돌아 왔을 때 우리가 받은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빌립 한가운데 살고있는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하고 이곳까지 와서 우리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린 모두 하나님을 섬겨

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감리고 선교사는 우리팀의 방문으로 인해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매일의 특별한 특징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도여행이었다. 팀 멤버중 한 명이 모든 마을에서 아이들을 모아 LLL그림 차트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임에 참석해서 500명 가량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림 차트는 뒤이어 믿는 자들을 위해 마을에 남겼다.

<예수> 영화를 보러 밤마다 군중이 들끓었다. 14,000명이 참석했고 4,550명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간증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나의 설교를 들은 68세 된 한 노인이 그날 밤 나를 초청했다. 그러곤 이렇게 물었다.

“하나님은 살인자도 용서할 수 있나요?”

내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보여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난 그와 함께 기도했다. 마리화나를 피고 이러한 악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젊은이들도 고백했다.

“우리는 이 악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길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린 사탄을 위해 예비된 곳

으로 갈거예요.”

●요약

사람이 열대우림기후의 비를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믿지 못할 일이지만, 우리의 Outreach이전이나 이후에만 비가 왔다. -- Outreach기간에는 전혀 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러진 간단한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여준 엄청난 격려가 되었다.

Outreach는 시기적절했고 그 축복은 엄청났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만짐으로써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셨다.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 모슬렘조차도 테이프를 받고 음반을 돌렸다.

와사어 카세트는 새벽에도, 술집에서도 들려졌다. 우리의 Outreach는 마을의 화제거리였다. 사람들은 농장으로 가는 길에 그들이 들은 것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계속적인 열매를 보기위해 양육팀을 보낼 계획이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로 기뻐한다. 우리를 위해 기도지원을 해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항상 신실하라

칩 커크(OM)

성경은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갈채를 받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사소한, 겉보기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일에서조차도 신실해야 한다.

당신은 에드워드 킴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킴벌은 그의 단순한 부르심에 신실했던 한 평범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서 한 잡화점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나중에 그의 주일학교 학생이 된 어린 드와이트가 구두를 팔고 있었던 곳이었다. 킴벌은 전에 그와 복음을 나눈 적이 있었지만 그날은 하나님께서 드와이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초청하라고 말씀하셨다.

가게 앞에서 이리 저리 서성이던 킴벌은 마침내 들어가서 드와이트에게 도전하여 드와이트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들었다. 한 평범한 사람이 드와이트라면 무디라고 하는 젊고 이름없는 신발 수선공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단순한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다. 에드워드 킴벌이 신실했기 때문에 DL무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되었다. 무디의 설교를 듣고 F.D.마이어가 그리스도로 돌아왔고 돌이켜 그는 J.윌버 채프만을 주께로 인도했다. 빌리라고 하는 정열적이고 유명한 야구 스타가 어느

일요일 채프만의 설교를 듣고 그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빌리의 주일 전도 집회에서 모데카 이 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전도자로 삼으셨다. 햄의 설교를 듣고 윌리엄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자기의 삶을 주님께 바쳤다. 그 이후 윌리엄 플랭클린 빌리 그레함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다. 그들중 한명이 조오지라고 하는 한 청년이었다. 그가 바로 Operation Mobilization의 창시자인 조오지 버위이다.

그럼 다시 어느 이름없는 한 청년에게 증거하라는 단순한 부르심에 순종했던 에드워드 킴벌에게 돌아가 보자. 에드워드 킴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 문제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는 신실했다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사소한” 일이 도대체 무슨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뭔가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선교에 대한 우리의 작은 공헌이 무슨 도움이라도 되겠는가? 우리의 헌신이 가치가 있더라도 한가? 우리의 증거가 가치있는 일인가? 우리는 너무나 작다. 그렇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으라!

시간이라고 하는 거대한 책이 완성되고 덮혀질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결과를

아실 것이다. 에드워드 킴벌에게 물으라. 아니면 젊은 드와이트가 뿌린 씨에서 태어난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에게 물으라. 사과 한 개속에 있는 씨의 갯수는 누구나 셀 수가 있다. 그러나 한 개의 씨속에 있는 과의 갯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세실 수 있는 것이다.

쉬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멈추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가 받는 박수 갈채에 의해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헌신만큼 보상을 받는 것을 기억하라.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신실하다면 우리는 어느 날 천국의 할렐루야 합창과 함께 이 말을 들을 것이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항상 신실하라!



바나바 조, 조이 정, 여호수아 박, 글로리아 김



일곱째 날

취·록·선·교·여·행·일·기

외국인으로써 ○○에서의 사역은 한계가 있었다. 자국민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었고 외국인에게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쪽 행세를 하였지만, 그 래도 한계를 느꼈다.

K시에서

열차는 밤새 12시간을 달려 K시 역에 도착했다. 한족 J자매님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J자매는 47세로 전에는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했다. 그런데 건강이 안좋아 퇴직한 지가 4년이 되었다. 그 동안에 3년 과정 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7월에 졸업을 한다고 한다.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 졌다고 했다. 지금은 삼자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직분은 없고 뒤에서 남모르게 상담을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돕고 있다고 했다. 또한 초원으로 전도 여행도 다니고 있다고 했다. 남편도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였으나 남편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 요청을 했다. 지금도 부인병으로 인하여 쉽게 피곤을 느끼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초원 유목민 전도에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었다. 우리의 전도 테이프가 나오면 전도하는데 너무나 유용할 것이라면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테이프와 함께 전기가 없는 초원에 수동식 카세트 플레이어(JOYTALK)가 보급되기를 소원했다.

우리의 녹음을 도와줄 언어 조력자 2명의 자매가 왔다. 그 중에 C자매는 대학을 나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H자매는 언어 석사학위를 마치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에 GR에서 녹음한 ○○ 테이프는 외○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학술적인 용어가 많으며 러시아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내○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언어라고 했다.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실링걸”어로 밤 늦게까지 녹음을 하였다.



열째 날

L시에서

OO에서의 두 번째 주일은 달리는 열차 안에서 맞았다. 우리 일행이 역에 도착했을 때 S선교사님이 L시로 이사 오신 지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가 여장을 풀었던 APT로 이사를 오신 지는 며칠이 되지 않으셨다고 했다. 선교사님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두 아들도 기숙사로 보냈다고 했다. 이미 선교사님 댁에는 S지역 전도를 갔다가 어제 도착한 O족 U형제님과, O족 D형제님이 와 있었다.

U전도자는 의사로서 시간을 정해 놓고 순회 전도를 다니고 있었고, O족 D형제는 택시 영업을 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순회 전도를 하고 있었다. 이번 전도 여행을 위해서 7일 동안 차를 타고 왔다고 했다. 이번 전도 여행은 이미 집으로 돌아 간 한 명과 함께 3명이 팀을 이루어 다녀 왔다고 했다. 그분은 그의 양을 팔아서 전도 여행비용을 마련하여 전도한다고 들었다. 그들 일행은 수동식 카세트 플레이어와 녹음 음반을 사용하여 전도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자기의 여생을 아끼지 않고 자기 종족뿐만 아니라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후에 이곳 교회 지도자 일꾼들이 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 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우리는 에베소서 2:1~8의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 그곳 교회는 장로와 목사가 없어 여러 명의 여자 일꾼들이 협력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삼자 교회였지만 성경적으로만 따르려고 하는 초대 교회와 같은 교회였다. 장로와 목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의식 등을 행하지 못하고 세례(침례)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의식을 행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8장의 말씀에 비추어 온 교회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의식을 행하도록 권면했다. 우리의 녹음을 도와주기로 한 O족 형제가 사정상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우리는 기도

하면서 다른 언어 조력자를 찾았고, 이 교회 일꾼들이 주위의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O족을 찾았다.

이 지역에서도 지역 방언이 심해서 의사 소통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꾼들의 도움으로 OO 지역 방언으로 복음 메시지를 밤늦게까지 녹음을 했다.

열두번째 날

어제 우리를 도와주었던 OO족 여인이 계속해서 녹음을 도와주었다. 녹음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여인은 얼굴이 밝아졌으며, 우리의 녹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또한 그들 종족에 대한 많은 정보도 주었다. 그녀가 말하기를 OO족 말도 남쪽 말과 북쪽 말로 나누어지는데 약 30%만 통한다고 했다. 이곳 성도들이 열성을 가지고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 그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 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음식으로 오찬을 하였다.

여러 성도 분들이 다른 OO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가 OO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 집주인 되는 남편이 OO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대학교 교수를 데리고 왔다. 그가 대본을 읽어 보고 우리의 녹음을 도와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은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 되어서 자기 말을 잊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네 말을 잘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떠났다.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가 회교도 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다.

저녁에 S선교사님 댁에서 교회 일꾼들과 함께 요한 복음 21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미전도 종족 음반 사역(ARM)에 대해서 비전을 나누었다.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들 가운데에서도 취록 선교사의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G자매는 자신의 직장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직장을 포기하고, 훈련을 받기를 희망했다.



우리 일행은 이곳에서도 더 많은 녹음 선교사들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했다. 외국인으로써 이곳에서의 사역은 한계가 있었다. 자국민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었고 외국인에게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족 행세를 하였지만, 그래도 한계를 느꼈다.

열다섯번째 날

L시에서

아침 8시에 R시에 도착했다. 우리를 마중 나오기로 한 선교사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선교사님 댁으로 전화를 해서 택시를 타고 그 집을 찾아갔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기차역에는 출구가 두 군데 있어 서로 엇갈렸다.

정성스럽게 준비해 준점심을 먹고 우리를 도와 줄 ○○족 청년들을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다.

○○족은 모두가 회교를 믿고 다른 종족과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은 회교를 믿는 사람이어야 했다.

우리를 도와주기로 한 청년들은 우리의 목적을 물었다. 우리는 소수 종족의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대본은 60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서는 이 대본으로 녹음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우리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승낙은 했지만, 대본에 예수님이 없

는 것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대본을 골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적게 기록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녹음을 했다. 주님의 각별하신 도우심으로 녹음을 하는 도중 가까워져서 7개의 메시지를 더 녹음하고 노래도 녹음할 수 있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종족이 운영하는, 돼지 고기를 요리하지 않는 식당에서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더욱 친밀해졌다.

그들이 제안하기를 자기들이 사는 그곳에는 다른 여러 종족이 있는데 그들의 언어를 녹음하는데 도와 줄 수 있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도 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지도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도 교수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대본을 보기를 원했다. 따라서 내일 지도 교수를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열여섯번째 날

어제 연락을 주기로 한 ○○족 청년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 수소문하여 연락을 취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추측으로는 지도교수님에게 문책을 당한 것 같다. 교수가 철저한 회족 이슬람 교도라고 했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글로리아 선교사의 질병이 더욱 심화되어서 오후 비행기로 ○○에 도착해서 J선교사님 댁에 여장을 풀었다.



“이번 취록 여행을 위하여
중보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각별하신 은총이 늘 함께 하소서.”

1. 이번 취록 여행을 통하여 8개의 언어가 취록되어 그들에게 최초로 주의 복된 소식과 구속자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려 줄 수 있게 되었다.
2.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찬양드린다. 세계 각처 GRN 소속 녹음 훈련을 받은 선교사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인 취록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전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8,000개의 언어중 4,859개를 이미 취록했고 1999년까지 5,000개 이상의 언어가 정복될 것이다. 나머지 3,000개도 우리 세대에 끝나게 될 것이다.
3. 복음메세지 음반 녹음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사역이듯이 녹음된 카세트와 수동식 카세트 재생기(조이토크) 배포가 전세계 마을마을 마다 구석구석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역은 실로 반쪽밖에 안 될 것이다. 이번 여행중 배포사역을 위해 많은 거둔 헌지 자국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외 교회 및 선교단체를 통한 배포를 위하여 긴밀한 협력사역이 가속화되어야겠다.
4. 주님께서 한국인을 통하여 아시아권 여러 나라에 특히 ○○내에 많은 사역자들을 일으키고 계시나 외국인으로서 사역에는 역시 한계가 있어 자국민만 들어 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접근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 많았다.
5. 한국어 FRTS를 시작하기 위해 하남시 신장에 적당한 장소가 마련될 것이다. 한국어 FRTS는 올해 늦가을에 시작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이에 GRN관계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영어 수확능력이 가능한 자원자는 네팔 FRTS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브라함 선교사

우리 일행은 P족 언어를 레코딩하려는 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를 도우려고 했던 P족 형제가 자기 언어로 말하는 것이 서툴러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곳에서의 레코딩을 포기하고 P족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OO 동남쪽 L현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기차를 타고 세시간 남짓 간후에 저녁에 출발하여 다음날 오전 중에 도착하는 워퍼버스(침대가 있는 버스)를 갈아타고 15시간을 달려 L현의 시가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 한 두 시간을 더 들어가야 비로서 수백가구의 촌락 형태로된 전형적인 P족 마을에 다다를 수 있었다.

마을 중앙에 원형으로 높이 쌓아 올라간 목재로 지은 다층식 건축양식(마을의 각종행사를 하기 위한 집회 장소)이 우뚝 선 모습이 보였다. P족의 또 하나의 특징인 마을로 진입하는 아름다운 모양과 두각으로 단정한 다리(橋)도 볼 수 있었다. 다리 위의 두각은 우리 나라의 고궁에서나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단장을 하고 이 곳에 들어오는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있었다. 열 개의 촌에 불과한 이 곳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것으로 보아 이들 문화의 독특하면서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양식이었다.

우리는 이 곳에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집을 알아 보았더니 얼마 후에 20살쯤 된 청년이 우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하심을 감사하며 그 청년의 집으로 향하였다.

그는 만으로 열여덟 살이 되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시험을 치루었고 발표를 남겨두고 있었다. 도사에서 멀리 떨어진 그 곳에서 정상적인 나이에 학교를 진학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여 그나마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손꼽을 정도였다. 우리는 그와 함께 저녁내내 대화를 나누며 P족에 관한 관심사들을 물어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스치는 생각은 이 청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어조력자(Language Helper)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다.

처음에는 나이도 어리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하여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로서의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으나 우리의 발걸음을 이 곳까지 옮기게 한것은 바로 하나님 이 예비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가 언어조력자로서 가능한 것인가를 곰곰히 따져 보기 시작했다. 결국은 우리 일행은 이 청년을 통하여 녹음을 시도해 보기로 하고 다음날 그 청년을 데리고 도시로 나왔다.

우리는 L시에서 자연스럽게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준비해간 전도지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니 그는 너무나 순순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과 앞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겠다는 고백과 더불어 주님을 영접하는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시간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대본을 읽게 하며 그에게 복음의 핵심 부분에 대한 공부를 지키기 시작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불과 몇시간밖에 안되는 청년을 데리고 우리는 대본을 한문장 한문장 가르치며 이해시키며 P족말로 옮겨 녹음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그것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생각보다 잘 따라 했다. 한 메시지가 끝나면 다시 우리는 녹음된 P족말을 한 문장 한 문장 들려주고 그것을 OO어로 번역해 보게 함으로써(Back Translation)원본과 대조해 그가 완전히 이해를 하고 녹음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그의 녹음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그 청년과 함께 있었던 5일 동안 우리는 완전히 녹음하는 일에만 전념하여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의 입으로부터 쏟아내는 P족언어로 된 복음의 메시지를 50여분 정도의 테이프로 녹음할 수 있었다.

그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학적인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를 넓어가며 복음을 점점 깨닫게 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더해갔고 나중에 대본의 철자가 틀린 것과 번역이 잘못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을 지적하게 될 정도였다. 우

리는 시간 시간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렸다. 온 힘을 다해서 한 문장씩 이해하고 자기 언어로 녹음하려는 그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수없이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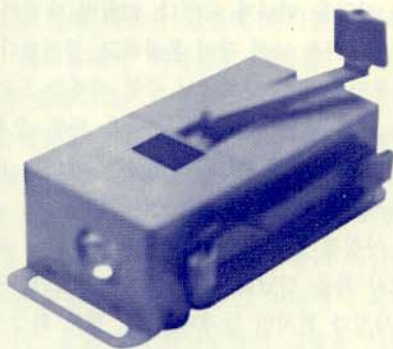
이백오십만 명의 인구를 가진 아직도 미전도 종족인 P족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처럼 너무나 어리고 갓 태어난 초신자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말로 된 아마도 최초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복음메세지를 실은 녹음테이프를 통하여 앞으로 그들의 마을 마을로 뿌려질 것이고 들려질 것이다.

우리는 이 청년과 헤어지기 전날 모든 녹음을 마치고 이 청년을 위한 세례식을 거행했다. 속속에서 빼놓아진 조출한 행사이었지만 나에게게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가스펠레코딩 사역을 통하여 미전도 종족에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3년 동안은 이미 소수종족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녹음할 사람이 연결되었는데 이번 P족의 경우는 하나님이 새로운 접근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300개가 넘는 각각의 언어 그룹은 그 종족 속에 이미 사역자가 있던 없던 간에 가스펠레코딩 사역자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아직은 숨겨졌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의 말로 된 복음의 메시지가 테이프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각각의 종족에 전달됨으로써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주님을 찬양할 무리가 각 족속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임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미니 수동식 발전기 제작되다



전 호주 지부 대표인 스튜어트 밀(85세)이 고안하고 국내 (주)제이오 택 대표이신 김진익 사장님이 제작하여 2,500대 중 1차분 970대를 무상으로 헌물하셔서, ARM은 지난 5월 미국 본부에 전달하였다.

이 수동식 발전기는 전기도 없고 배터리도 없는 지역에서 일반 카세트 재생기에 6V 전원을 공급하므로 쓸모없던 카세트가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땅끝 미전도 종족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달코저 주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자들의 헌신에 의해 가능해졌다.

이 일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제작 생산하여 땅끝 미전도 종족들을 섬기신 김 사장님과 섬기시는 교회에 항상 주의 각별한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취록선교사 훈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전반기 4주간의 교실에서의 이론 훈련을 마치고 현장으로 녹음 사역을 떠나게 되었다. 12월의 네팔의 날씨는 한국의 봄, 가을 날씨 같이 온화하고, 청명했다.

우리는 카투만두 한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녹음 여행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한후, 오후 5시에 다막이라는 도시로 밤에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 16시간을 여행해야 하는 거리였다.

다막에서 아침점 점심을 먹고 먼저 출발했던 네팔 현지인 선교사 록을 만났다. 시골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시골 사정과 현지인들과의 관계, 필드 화장실의 사용법, 현지 교회에 헌금하는 요령에 대해서 주의 할 사항을 듣고, 기도회를 가졌다.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에 어떤 사람은 일어서서, 어떤 사람은 버스 지붕에 탔다. 그나마 감사하게도 우리 일행 일부는 제일 뒷자리, 좁고 딱딱한 의자에 우리 일행은 몸을 실었다. 아브라함 선교사님은 키가 너무 커서 안기도, 서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30분쯤 갔을까 갑자기 버스가 멈추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버스에 내려서 웅성거리는 사람들, 걸어가는 사람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버스 회사와 지역 주민의 대립으로 주민들이 도로를 점거한 것이었다. 오지도 못하고 못할 상황이었다. 먼저 출발하여 기다리는 록이 있는 곳까지는 아직도 2시간 이상을 더 가야 했다.

우리 일행은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아이들은 목마를 태우고, 등에는 배낭을 지고 앞길을 모른 채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갔을까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여호수아 선교사가 반대편에서 오는 웨곤차를 세우고 아브라함 선교사님과 함께 운저사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분쟁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우리 일행을 태우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자” 한참만에 운전사가 동의하여 차를 돌리는 순간 어디선가 죽창을 들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청년들이 몰려왔다. 자기

들의 목적을 위해서 차를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장벽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나는 목마를 타고 있는 경찬이를 가리키며, 힘들어 죽겠으니 도와 달라는 표현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경찬이를 사용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한 청년을 감동시키사, 우리가 그들을 통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동승시키사, 계속적으로 있는 죽창을 든 무리를 만날 때마다 무사히 통과하게. 하셨고 록이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

우리는 운전사에게 얼마의 돈으로 감사의 표시를 했지만 다른 네팔 사람과는 다르게 끝까지 거절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언어를 녹음할 마을로 3차 출발을 했다. 그곳은 네팔의 남쪽과 인도의 북쪽 국경 지역으로 넓은 광야 지대였다. 얼마쯤 가다가 우리는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라즈방시로 다른 팀은 썬탈리로 출발했다. 차에서 내린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30분간 더 걸어야 했고 어두워져야 그곳 교회의 지도자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하니 너무나 좋아했다. 녹음중에 때때로 자기들의 언어에서 성경 내용에 적합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열띤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이제 그들의 언어로 복음 메시지가 녹음되므로, 그들은 그들의 정서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자기 종족들에게도 자신들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즐거워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네팔의 미전도 종족 라즈방지족과 썬탈리족에게 나누게 하셨다. 우리가 녹음한 테이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비록 우리가 그들을 당장 이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주님 앞에서 만나 찬양할 그 날을 생각하며 마음 벅참을 감출 수가 없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글로리아 김

공중의 새를 보라

현장녹음훈련학교(F.R.T.S)3기에 참여하게 된 나는 비행기조차 착륙할만한 땅도 없을 듯한 산나라 카투만두 분지에 4월 20일 교육에 임하기 위해 4월 18일에 들어갈 때에는 짧은 영어 실력으로 인해 걱정하기도 했지만 사 50:4-5 “학자의 혀와 귀를 주사”하신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들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체 10주의 훈련과정 중에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실전에 옮기기 위해 6월 1일 Trekking허가 신청을 하고 6월 2일 현장을 향해 떠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카트만두 동쪽 국경지역인 일람의 림부 종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녹음하기 위해 저녁 5시에 버스 터미널을 출발해 카투만두 협곡을 벗어난 후부터 저를 당혹케 한 것은 끝없는 평원은 아니지만 버스로 수시간 달려갈 만한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팔하면 산인데 이러한 이미지와는 아주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옥의 일층은 기둥만 있는 빈 공간이고 나무로 지은 이층집과 초가집들이 열대야자나무, 바나나 나무와 어우러져 흡사 아프리카 평원을 가로지르는 듯한 분위기를 맛보며 12시간만에 도착한 바르타모드는 사람이 발로 짓는 3륜릭샤가 대중 교통 수단의 전부 일만큼 한적한 지방 소도시였습니다.

비르타모드에 도착하면서 라즈방시라는 소수 종족을 찾아가 준비한 복음 테이프를 갖고 수동식카세트 플레이어인 “메신저 II”를 돌려 복음을 들려주니 수십 명의 주민이 몰려와 듣는데 그 중 전혀 처음 대하는 티르마하두라즈방시라는 사람이 우리 전도팀 정면에 돛자리를 가지고와 좌정하더니 복음테이프를 듣는 대로 그 내용에 대해 질문해 우리로 하여금 설명하게 함으로써 많은 주위 사람들이 들을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모습이 사전에 각분을 준비

했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 복음을 설명케 하시는 과정을 연출시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목격하는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복음테이프를 1시간여 동안 돌려서 다 돌려 준 후 준비해간 같은 내용의 테이프 15개를 순식간에 5Rs씩 (한화 110원 정도)받고 모두 팔았는데 바로 마을 화성기를 이용해 복음테이프를 다시 돌려 자신들이 귀담아 듣는 모습을 보고 비록 그 자리에서 회심자를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르타모트를 6시 30분에 출발해 최종 목적지인 일람에 도착한건 8시간만인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숙소를 정했는데 나무침대 일인용에 하루 20Rs(루티)니까 한화 440원 정도로 이렇게 쌀방에서 자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듣성듣성 뚫린 구멍 사이로 옆방이 다 보이는 판잣집이었지만 설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곳에서 10일 정도 머물렀습니다만 이곳 돼지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앓고 거두지도 앓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 6:26)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네팔 돼지를 봐라. 먹이를 안 주어도 살만 잘 찌지 않느냐?” 네팔 돼지가 풀을 얼마나 잘 먹던지요. 드디어 6월 7일 참마이다라는 동네의 한 외딴 집을 빌려서 믿은 지 3년되고 1년 전부터 자기 집 지하에서 바닥에 거적을 깔고 예배드리는 크리스만이란 형제의 도움으로 림부종족언어로 녹음을 시작해 4일 동안 꼬박 함께 사역하는 형제의 헌신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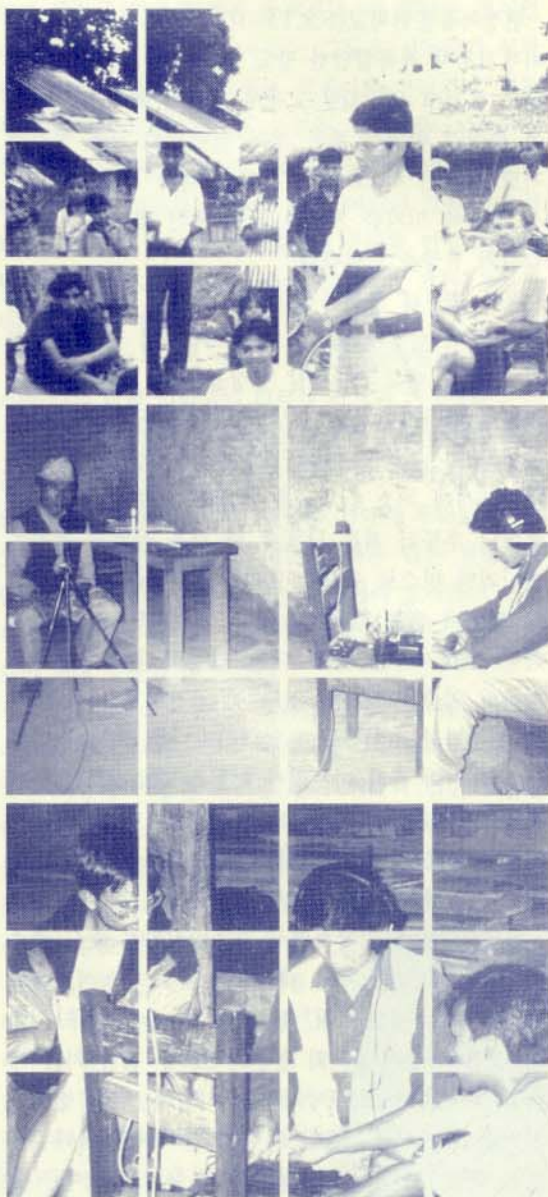
FRTS

취득신교사 확보를 위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도움으로 소음을 피해 장소를 옮겨 가며 60분짜리 복음을 녹음하였습니다. 일정을 마치는 날 녹음 작업을 지켜보던 한 학생이 마음을 열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사 41:15)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갈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새 타작 기계로 삼아 언어와 우상의 벽을 쳐부서뜨리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훈련에 인도학생(19세) 1명, 인도네시아인(25세) 2명, 그리고 저까지 훈련생이 네 명이고 선생은 다섯명이었습니다. 수요일 오전은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 시간만되면 모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선생은 영어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게 아니었습니다. 강의는 그런대로 듣겠는데 도무지 영어로 기도가 제대로 될 턱이 없었습니다. 찬송, 기도, 성경 말씀 모두 영어로 진행하는데 마음에 도무지 와닿지를 앓더군요. 아무리 외국어를 자기 나라 말처럼 하는 사람이라도 모국어만큼 자기 가슴에 꽉꽉 와닿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에는 처음은 간단히 영어로 시작했다가 엇다 모르겠다 하고 우리 말로 했더니 제 가슴이 얼마나 시원하고 뜨겁던지요. 그래서 복음 테잎 사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 주는게 제일 전도 효과가 큼을 제 자신을 통해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이제 훈련을 마치고 열심히 현장 녹음 선교사로서 실천에 임할 수 있다니 가슴벅잡니다. 빨리 제가 섬기기를 원하는 C국 소수민족에게 달려 가고 싶을 뿐입니다.



1998. 7. 9

찰스 리

GOSPEL RECORDINGS NEWS

서 아 프 리 카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리베리아에 폭동과 내란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피난민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이슬람교 예배의식때마다 복을 찾던 R이라는 노인도 피난민 무리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수용소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한 것은 전쟁때문만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믿어왔고 의지했던 이슬람교에 대해 마음 깊숙히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회의 때문이었다. R은 몇몇의 기독교 전도팀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었지만 곧 쫓겨났던 것을 기억했다. 기독교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많은 여자와 아이들, 가정

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추방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R이라는 노인은 피난민 수용소에서 다시 기독교를 전하는 전도팀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이다. 전도팀들은 수용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었다. 또한, 여러 방언으로 된 복음 테이프를 들려주고 예수 영화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리베리아인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설명해 주었다. R이라는 노인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남은 삶을 주를 따르기로 결단했다. 더 이상 이슬람의 예배를 위해서 복을 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예수 십자가 군병으로써 천국의 복에 발 맞추어 행진하고 있다.

우리 전도팀이 수용소에서 R을 만난 것은, 수도에서 사역이 위험해서 사역지를 수도에서 시골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하며 수도에서 사역을 행한 마지막 해였다. 당시의 리베리아의 수도의 상황은, 시민 10명중 1명의 비율로 사살되었고, 생존자의 반수가 시골로 탈출했다. 그해 1월까지의 난민들이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안전한 때였다. 우리 전도팀들은 난민수용소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전에 그들의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을때 우리를 추방한 이슬람 교도들이었다. SIM 국내외 복음선교회와 GR팀은 여러 수용소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전도팀을 만들었다. 예수 영화를 상영했

고, 여러 말로 된 전도 카세트를 배포하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였다.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수천명이 그리스도에 게로 돌아왔다. 이들 중에는 복을 친 노인을 포함하여, 많은 이슬람 교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이 폐허가 된 마을로 돌아와 자기들의 집을 복구할 때, 그 지역교회들은 개종한 난민들이 주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다음 한해 동안 리베리아에 있는 이슬람교도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마이, 골라, 바이족 사이에서 사역하는 GR팀이 대신 맡기로 했다.



이 여인은 카세트 선교를 하는 동안 주님을 영접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버렸고, 그녀는 지금 목사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이 노인은 새 주인을 위해 복을 친다.

GOSPEL RECORDINGS NEWS

신기한 상자(THE STRANGE BOX)

타일랜드 종족을 위한 복음

어떤 이들은 미소를 짓는 이도 있었고, 다른 이들은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의 눈은 낯선 방문객이 가져온 박스를 향해 있었다. 타일랜드 마을 사람들은 재생녹음기를 생전 처음 보았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생소하지만 어마어마한 이야기도 물론 처음 접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닭의 피 따위나 요구하는 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러 오셨고, 복수가 아닌 용서를, 슬픔이 아닌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하신다. 낯선 이방인인 선교사는 그들의 말로 된 수동 카세트를 가지고 이 오지에 왔다. 하지만 태국인들은 대부분 불교신자이고, 아직도 미신과 우상 숭배와 부족간에 제사의식이 행해지고 있

다. 이러한 부족들은 오히려 대다수의 태국인들보다 복음에 더 빨리 반응을 보인다.

그들에게 성경번역은 수년간의 힘든 작업이 따라야만 한다. 그 동안 복음 메시지를 재생기로 태국의 147개 언어와 52개 방언으로 기록과 메시지를 들려 주어서, 오늘날 그들로 하여금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게 한 것이다.

"주여, 아직 정복하지 못한 언어들의 녹음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 민족이 승리하여 주님 나라의 일군이 되는데 한몫을 하게 하소서."

-크리스와 셰릴 마손-



훈련과정으로부터온 소식들 (NEWS FROM THE TRAINING COURSES)

네팔에서 바니 슈레스타는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파업으로 인해 버스가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한사람이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6명의 녹음선교사 훈련생들, 그 중에는 통역사와 지도교사도 있었는데, 이들은 산탈리 사람들과 함께 녹음을 위해 나머지 5마일을 걸기 시작했지요. 한국 사람들은 뜻밖의 일에 기쁨훈련을 하며 걸었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고 어떤 사람이 그의 수레를 탈 수 있게 해 주어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 강가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경배드렸습니다. 소망에 찬 한국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에 충실하고 시험 성적도 좋을 뿐 아니라, 현장 녹음도 훌륭히 해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본훈련을 마치고 나면, 배운 것을 주님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려고 아시아의 곳곳에 파견되게 됩니다.

멕시코에서 데이비드 구띠에레는, 최근에 녹음선교사 수련생이 콜리야칸에 6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곳은 이들이 후에 녹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여러 언어들이 있는 곳입니다(콜리야칸에는 4,700여 개의 카세트가 배포되었고, 2,900명이 결단하였다). 더 많은 일군들이 매일 저녁 캠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10가지를 포함하여 70개 이상의 언어로 된 테이프들을 배포하였다.

GOSPEL RECORDINGS NEWS

과테말라의 최신정보 (GUATEMALA UPDATED)

우리는 존과 도나 스튜어트가 과테말라에서 3년동안 사역한 성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해에는 빈번한 실패와 질병에도 불구하고 존은 모두 23개언어와 방언들을 녹음할 수 있었다. 이중 15개는 처음에 녹음된 것들이다. 이 녹음 테이프들은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복음을 새로운 지역에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한 선교사는 복음테이프들 중 하나에 대해 이렇게 보고했다. "우리는 이 테이프에 대해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타주물코 마을에서 성경의 도구가 만들어 진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맘 종족들 중 한사람과 테이프를 점검할 때, 그는 태양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사실에 놀랐고, 테이프에 대해 열정적이었으며, 그의 종족들도 그 테이프를 많이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빵집에 테이프를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했고, 그것을 들은 모든이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테이프를 듣고 나서 한 사람은,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할 때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존과 도나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가들에게 빛을 쬔고 지금은 막 넉넉한 휴가에 들어갈 참이었다.

휴식 동안의 진정한 재충전을 위해서 그리고 녹음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인디아에서의 추수 때 (A TIME OF HARVEST IN INDIA)

자무와 카쉬미르는 인도의 북쪽에 있습니다. 이 땅의 자원은 무한한 보고입니다. 꼭대기에는 눈이 쌓여있고, 늘 푸른 계곡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니다. 그런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가 국경분쟁으로 50년간 끊임없는 폭력과 유혈이 있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경계선에서 투쟁자들은 점차 나라 안으로 들어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이들 인구는 이슬람교인이 65%, 힌두교인이 30%, 시크교인이 5%, 기독교인이 0.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초 GRA에서 온 5명 한팀이 도그리 종족들에게 널리 배포할 특권을 갖게되었습니다. 카쉬미르 복음전도 단체는 우리가 많은 부족민들에게 다가가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시청각자료와 카세트 재생기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된 1,000개의 카세트도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도그리족은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 가운데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양치기들인 구자르들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카세트 재생기를 통해 그들의 말로된 말씀을 듣고, 놀라워 했고, 카세트 재생기와 카세트를 전해 받았을 때, 매우 흥분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마을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산으로 다니면서 주변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에게 그들의 말로된 테이프를 들려주면 모여들었고, 그 무리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거기에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중 42명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카쉬미르 복음전도협회는 이 지역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우리는 산토쉬 토마스 목사님에게 많은 카세트를 두고 그곳을 떠나왔고, 후에 더많은 다른 종족에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와 협력할 것입니다. 이 곳의 사람들은 계속되는 테러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곳에는 아직 미전도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GRA에서 팀을 양육하여 그의 사람들을 자무와 카쉬미르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녹 앤토니(GR인디아 대표)-



한국어 FRTS

(현장녹음선교사 훈련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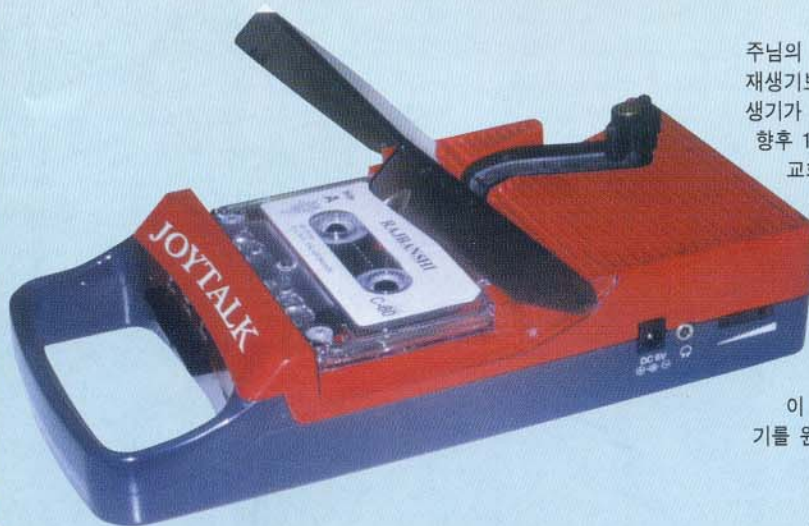
4기 10주 과정 모집

네팔 FRTS 3기가 지난 6월 26일 10주간 훈련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가운데 인도인 1명, 인도네시아인 2명, 한국인 1명 등 4명이 수료했다. 그 동안 훈련받기를 원하나 영어수학능력이 부족해서 참여치 못했던 지원자들을 위하여 국내에서 한국어로 98년 11월 중 개설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6주간, 홍콩·중국에서 4주를 이수하게 된다.

특별히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사명감을 부여받고 취록선교사로 헌신할 형제, 자매님을 찾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 408-6959로 문의하십시오.

REJOICE! GIVE THANKS IN EVERY SINGLE THING!

JOYTALK



주님의 필요에 의해 기존의 수동식 카세트 재생기보다 세 배나 작고 가벼운, 새로운 재생기가 "조이토크"란 이름으로 제작되었다.

향후 10년 동안 10만대 보내기 운동을 한국 교회와 연합하여 전세계 복음의 불모지인 미전도집단 종족들의 마을 마을마다 그들의 언어로 녹음된 복음메세지 테이프와 함께 전달하려고 한다.

오지에서, 말하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영적 병기를 위해 그 제작 과정에 필요한 모든 진행 사항이 여러 동역자들의 중보기도로 보호받기를 원한다.

<대당 35,000원 예정>

복음음반선교회(ARM)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한 지체로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증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 갈 수 없는 곳, 선교사가 직접 증거하는데 장애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들의 말로 녹음된 복음음반을 제작, 배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명이 주는 각종 첨단 장비를 사용한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세계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